

退溪와 醇正文學**

丁 奎 福*

I.

여기에 醇正文學¹⁾이라 한 것은 趙潤濟先生에 따라 성정에 즉하고 자연에 임한 문학을 지칭한다. 즉 필자는 「退溪言行錄」에 퇴계시에 대하여, 「粹然一出於正」의 평을 밑받침하여 그와 같이 사용하였는데, 조선 전기에 江湖시인에 의해 이루어진 일군의 이른바 江湖歌道는 자연미를 훨씬 심화한 것으로서, 티없는 자연과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유가적인 윤리관에서 이를 보아도 아무런 티가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퇴계시가관이요, 또한 순정문학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척불숭유의 책으로 종래부터 생활의 가치관을 지배했던 불교사상은 자연 그 주도권을 상실하고, 대신 유교사상이 모든 문화계에 가치척도가 된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거기서 조선조 전조에 걸쳐 정치·경제·풍속·문학 등 제반 문화계에 유교사상이 주도권을 장악하니 조선조문학은 유교문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교사상이 조선조문학에 끼친 功過는 오늘날 시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문학의 다양성을 어느 규범에 집어넣어

* 고려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0) 趙潤濟先生은 그의 小論 「國文學과 時代思潮」에서 「性情的 바른데서 말하는 醇正文學」云云하고, 또 「漁父歌나 松江의 歌辭는 一點 邪氣없는 純潔한 마음에서 우리나라 醇正한 作品으로」云云하였다.

작품을 기계주의적 공식성에 떨어지게 한 것은 그 過로서, 말하자면 고 소설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구성을 권선징악적 테두리에 몰아 넣은 것이 그것이다. 功에 있어선 시가문학에서 성정에 즉하여 일군의 江湖歌道를 낳게 한 순정문학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논의코자 하는 순정문학은 바로 유교사상의 산물이며, 또한 이를 이론적 근거에 의해 실제 작품을 쓴 것은 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퇴계의 순정문학은 당시 歌壇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뿐만 아니라 당쟁으로 인하여 致仕하여 자연과 유유자적하는 전원문학을 낳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오늘날 절찬하고 있는 자연미를 형성하게 하였다.

퇴계의 문학관은 그의 문집에서 산견할 수 있지만 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것은 그의 「陶山十二曲」 발문이다. 퇴계는 만년에 향리 도산에서 修德求道の 한 방편으로 「도산십이곡」을 지음과 동시에, 그 발문에 그의 시가의 창작목적 내지 견해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 놓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발문이야 말로 더구나 그의 만년에 쓰여진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분명 그의 확고부동한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써 주목된다. 그 발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惟近世李麓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亦惜乎 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盖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 欲使兒輩朝夕習而欲之 馮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而歌者與聽者 不能無交有益焉 顧自以蹤跡乘若此等閑事 或因惹起鬧端 未可知也 又未信其可入腔調諧音節與未也 姑寫一件藏之篋笥 時取玩以自省 又以待他日賢者之去取云爾

우리는 위의 발문에서 퇴계의 시가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네가지 점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麗朝의 속요 내지 경기체가인 「한림별곡」 따위는 淫詞로 처리한 것.

둘째, 새로운 시가는 玩世不恭이 없어야 되고, 또한 온유돈후해야 한다는 것.

셋째, 「도산십이곡」의 효용성은 이를 읽는 자로 하여금 鄙吝을 씻고 感發融通케 한다는 것.

넷째, 「도산십이곡」은 대략 李龔의 六歌을 모방하여 지었다는 것.

첫째의 문제에서, 퇴계가 불교 내지 도교의 문화권내에서 형성된 여조의 속요와 「한림별곡」 따위를 淫詞로 취급하는 것은 그의 도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이는 麗謠가 조선조 초기에, 남녀상열지사 혹은 사리부재의 취급을 받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둘째와 셋째의 문제에서, 퇴계의 확고한 시가관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도산십이곡」으로 말미암아 비린을 씻고 감발용통케 한다는 관점은 시가의 공리성으로 이와 연관하여 위에 표시된 온유돈후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예기에 「溫柔敦厚 詩教也」라 하였고 그 소에 「溫謂顔色溫潤 柔謂情性和柔 詩依違諷諫 不指切事情 故云溫柔敦厚是詩教也」라 한 대로 온유돈후는 퇴계의 생활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는 또한 공자의 「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과 공통된다. 말하자면 「온유돈후」는 윤리적인 관점이요, 「사무사」은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퇴계의 시가관인 온유돈후는 「도산십이곡」이 그의 만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퇴계의 「晩年尤喜看朱子詩」〈퇴계언행록〉을 밑받침하여 더욱 확증되며, 또한 온유돈후가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시경』관으로 풀이된 것과 아울러 온유돈후는 퇴계의 시가관의 변천과정에서 그의 확고부동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시가관은 전통적인 유가의 시가관에서 유래한 것이며, 거기서 퇴계의 순정문학도 여조의 혼탁한 환경에서 파생된 음풍 내지 비순정의 시가풍을 혁신할 것을 제창함과 아울러 전통적인 시가관을 재인식해 주는 것이

라고 본다.

다음은 영향의 문제이다. 퇴계는 李鼈의 六歌를 효방하여 「도산십이곡」을 지었다는 것이다. 李鼈 육가를 농암 이현보의 어부사로 풀이한 것이 있으나²⁾ 이는 오류이며 李鼈은 『朝鮮名臣錄』에

號藏六堂 龜弟 中司馬試 以朴彭年外孫 錮廢學業 嘗有放言詩一篇云

이 있음으로 보아 李鼈은 호가 藏六堂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사육신 박팽년의 외손으로 과거가 금지되고 아울러 放言詩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李鼈은 분명 不平客으로 그의 육가는 자연 퇴계의 玩世不恭의 뜻이 있고 은유돈후의 實이 적다는 평을 받으리만치 불평과 풍자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李鼈의 육가가 현존하지 않으니 퇴계가 어떤 것을 효방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아마 육가라는 형식을 취한 듯싶다.

II.

그러면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도산십이곡」은

이런들 엇더흐며 더런들 엇더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밀며 泉石膏肓을 고태 므슴흐료

에서와 같이 「泉石膏肓」<자연미>를 주제로 하여 조선조 전기의 江湖歌道와 같이 대체로 귀거래와 고답적인 전원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2) 金慶漢씨의 「陶山十二曲에 대한 연구」<陶南趙潤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p.114

「도산십이곡」은 티없는 자연을 조용히 관조하며 아무런 風없이 잔잔하고 고요한 음율로 이루어져 있다. 말하자면 퇴계의 온후한 성품이며, 문자 그대로 순정이다.

퇴계는 전원시인이라고 할 만큼 그의 시는 「도산십이곡」뿐만 아니라 한시에도 전원풍이 산재해 있다. 그의 전원풍에 대하여는 퇴계가 여조睿宗時 顯位에 있다가 영달을 버리고 王召에도 응하지 않고 春川 淸平山에 은거하여 선도로서 자락하는 李資玄(1061~1125)의 江湖樂을 다음과 같이 추모하고 있다.

春川之淸平山 卽古之慶雲山也 前朝李資玄 棄官歸于此山 …… 然乃自辭榮避位 高踏遠引 蟬蛻於濁穢之中 泓晏於萬物之表 住此山 蓋至於三十七年之久 雖卑辭厚禮 不足以屈其節 千駟萬鍾 不足以動其心 非有所樂於胸中者 安能如是哉³⁾

특히 위의 卑辭厚禮도 그 절개를 꺾지 못하고 千駟萬鍾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구절에 이르러 우리는 퇴계의 巢父·許由에 접근된 은둔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퇴계는 또 농암 이현보(1467~1555)가 고회가 넘은 고령으로 향리에 은거하여 자락하는 강호생활을 다음과 같이 得眞이라고까지 극탄하고 있다.

惟我龔巖李先生 年踰七十 卽投綏高屨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傲於烟波之裏 徘徊於釣石之上 押鷗而忘機 觀魚而知樂 則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眞矣⁴⁾

특히 위의 「屢召不起」에서 우리는 퇴계의 탈유가라할 만큼 그의 전원풍은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본다.

3) 『退溪全集』 권1, 過淸平山有感并序

4) 『龔巖集』 권3, 「附書漁父歌後」·『退溪全集』 上 권43

퇴계는 위와 같이 본래적으로 전원풍을 갖고 있었지만, 또한 그는 도연명의 전원생활을 연모한 흔적을 그의 시중에서 읽을 수 있다.⁵⁾ 뿐만 아니라 퇴계는 「도산십이곡」에서

當時에 녀던길을 몇히를 버려두고
어디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되므슴 마로리

에서 도연명의 「귀거래」의 영향을 받았고,
「清涼山歌」

清涼山 六六峰을 아느니 나와白鷗
白鷗 | 야 흰스흐라 못미들슨 桃花 | 로다
桃花 | 야 썬나지마라 漁舟子 알가흐노라

는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상을 따왔으며, 퇴계는 또 도연명을 호방하여 「도화원기」을 지었고, 특히 「陶山記」는 도연명의 「五柳先生傳」의 상을 많이 인습하였는데 「도산기」의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은 「오류선생전」의 「每有會意處 欣然忘食」의 구절까지 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퇴계의 自祭文의 일절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는 도연명의 自祭文 「陶子將辭逆旅之餘 永歸於本宅」의 상과 상통될 뿐 아니라, 특히 「乘化歸盡 復何求兮」은 陶淵明의 「歸去來兮辭」의 말문 「聊乘化以歸盡 樂夫天命復奚疑」의 구절을 그대로 襲用하고 있다. 이로 보면 퇴계는 귀거래풍의 문학뿐만 아니라, 사상면에도 도연명의 도가적

5) 『退溪全集』上 권3 「松菊陶園典竹三 梅兄胡奈不同參」<節友社> 「大舜親陶樂且安 陶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陶山書堂>

인 입장에서든 많은 접근이 있다고 보아진다.

국내적으로는 퇴계 이전에 농암·면앙정 등의 전원풍이 있음은 주지된 일이다. 특히 농암의 작품은 면앙정에 비해 훨씬 전원풍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농암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효방하여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리업시
田園이 將蕪하니 아니가고 엇덜고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 기다리느니

의 「效嘯歌」까지를 지었다.

퇴계는 농암과 동향인으로 상호 접촉이 많았고 퇴계는 농암의 「어부사」의 구득경위에 대하여 발문까지 썼고, 농암의 강호풍에 대하여도 歎賞하고 있음은 전제한 바 있다. 또 퇴계의 시

高臺新曲賞深秋 手折黃花對白鷗 仰德至今淸夜夢 月明時復到中洲⁶⁾

에서도 퇴계가 농암의 덕을 추앙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농암 사후에 그의 행장까지 쓴 것으로 보면 퇴계의 전원풍이 농암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퇴계의 전원풍은 당시 사화라는 역사적인 배경에도 있지만, 퇴계 생래의 泉石膏肓 및 도연명, 농암의 전원풍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도연명의 전원은 도가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어서 본래가 그의 본향으로 되어 있지만, 조선조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한 전원은 본향으로서가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假漁翁의 이란 데 있다.⁷⁾ 이로 보아서 도가적인 전원이 어떻게 유가적인 전원으로 수용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퇴계의 전원풍은 유가적이면서도 도가와 유

6) 『退溪全集』上 권3 「上龔巖李先生」

7) 崔珍源 「江湖歌道の 研究」<成大 論文集(八)> 참조

가가 섞인,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이 뒤섞인 갈등구조로 점철되어 있음은 매우 주목된다.

III.

퇴계는 일찍이 조운제선생이 논평한 바와 같이 이학에 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수많은 성리론과 그의 시작은 가히 문학가의 문학을 능가하고 유가문학, 다시 말하면 순정문학의 표준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퇴계의 높은 위치를 감안할 때, 퇴계의 문학과 작품은 당시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퇴계의 고제자 曹好益(1545~1609)은 「도산이곡」을 受誦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이름 높은 歌者로 하여금 唱에 옮겨 스스로 감상하면서 유유자득의 낙을 삼았다 한다. 또 訥隱 李光庭(1552~1627)은 「도산십이곡」을 唱하는 것을 듣고서 한시를 읊는 한편, 이를 좌우명으로 삼았다 하고, 大山 李象靖(1710~1781)은 「도산십이곡」을 취하여 한시를 읊고 이어서 自注까지 붙인 일이 있고, 퇴계의 후손인 響山 晚壽는 杞泉 權承夏의 행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한다.

自提抱時 母夫人以陶山歌曲詩章 及小學嘉言善行 朝夕詔教<響山文集「杞泉權公所狀」>

이로 보면 도산십이곡이 후세 유가의 자녀교육의 교본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沙村 張經世(1547~1615)는 퇴계를 숭앙한 나머지 도산십이곡을 효방하여 「江湖戀君歌」 전·후 여섯곡을 지었다고 한다.

公於我東諸賢中 最慕退陶李先生 擬和陶山六曲詩 作江湖戀君歌 使子弟及門徒諷而誦之 前之曲 則愛君而憂時也 後之曲 則尊朱而斥陸也⁸⁾

그러나 장경세의 「강호연군가」는 퇴계의 도산십이곡에 비해 효방하였다고 하리 만큼 시상, 시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 장경세가 효방하였다는 것은 상호 여섯곡이라는 형식적인 데 있을 것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의 영향의 문제에서 위에 언급된 것은 확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한 것이요, 이들 외에도 퇴계의 성리론이 조선조를 휩쓸어 거의 그 교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퇴계의 시가관과 작품 「도산십이곡」도 그와 같이 문학의 교본이 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자연미를 깊숙히 파고들은 尹孤山, 鄭松江, 權好文, 申欽, 金聖重 등 여러 강호시인에게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며, 말하자면 당시 宦海風波를 떠나 향리에서 자연과 유유자적하는 전원문학의 표본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IV.

위를 종합해 말하면, 퇴계는 여조의 불가 내지 도가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산출된 麗謠의 음풍을 혁신하여 유가적 가치규준에 의하여 그의 인격·사상의 노숙기에 들어 순정문학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시가관에 의하여 「도산십이곡」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순정문학도 당시 사회라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의 본래적인 泉石膏肓 및 외래한 도연명과 안으로의 농암의 전원풍의 영향으로 마침내 전원문학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또한 퇴계의 순정문학은 당시 퇴계의 높은 성리론과 함께 당시 문학계에 표본이 되어 자연미를 일층 심화한 일군의 江湖歌道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본다. 다만 본래 도가적인 전원문학이 유가적인 전원문학으로 왜 수용되었고 어떻게 변용되었는가, 또는 도연명·농암·퇴계의 전원풍의 특색은 각기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8) 「沙村張先生集」 권4